

濟州島 巫神의 形成

玄 容 駿*

目 次

I. 序	IV. 神들의 形成
II.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	V. 結 論
III. 部落守護神	

I. 序

濟州島의 巫俗에서 崇拜되는 神들은 大別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一般神, 部落守護神,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이 그것이다.¹⁾ 一般神이란 天地日月・山海・生死・疾病・農耕・漁撈・貧富 등 自然現象 및 人間生活의 一般의 事象을 차지하여 支配하는 神들로서 全島 레벨의 神이고, 部落守護神이란 한 部落 안의 土地 및 部落民의 諸般生活을 차지하여 守護하는, 部落 레벨의 神들이다. 이에 대해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이란 한 家口 내지 한 氏族의 諸般生活을 守護하는 神들이다. 이 神은 氏族單位로 모시지 않고 家口單位로 모시는 것을 보면 家口 레벨의 神이라 할 만한 것이다.

本論은 筆者의 調査한 資料를 기초로 하여 이 세 가지 神群의 性格을 分析하고, 이를 통하여 그 神群의 形成過程을 考察하려는 것이다.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教授

註 1) 濟州島 巫神의 分類에 대해서는 拙稿(「巫俗」)『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1974. 文化財管理局 pp. 87~112에 이미 詳論한 바 있음.

II.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

먼저 家口 레벨의 神부터 그 性格을 分析해 나가기로 하자.

濟州島의 巫俗社會에서는 이 神을 <조상><초상> 또는 <일월조상>이라 부른다. <조상> 또는 <초상>이란 곧 <祖上>이란 말이지만, 이<조상>은 血緣祖上은 아니다. 血緣祖上은, 高祖父母까지는 祭祀와 名節 때에 그 以上の 祖上은 年 1회의 墓祭 때에, 男子 子孫들의 祭官에 의해 儒敎式 祭法으로 모셔지지만, 이 <조상>神은 심방(巫覡)에 의해 巫俗儀禮인 곳으로 위해진다. 血緣祖上이나 이 守護神이나 다 조상(祖上)이라는 같은 名稱으로 부르지만, 島民은 이 두 가지를 觀念的으로 명확히 구별한다.

이 守護神은 있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있다. 있는 집안이란 과거의 어느 血緣祖上이 모시기 시작한 것을 그 子孫들이 傳受한 家系이고, 없는 집안이란 지금까지 血緣祖上 중에서 이런 守護神을 모시기 시작한 일이 없는 家系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개중에는 본래 모셔 내려오고 있던 집안이라도 중도에 中止하여 잊어 버린 집안도 있을 수 있다.

이 神의 繼承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姓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도 있고, 어머니에서 딸로 繼承하는 것도 있다. 父系的 繼承과 母系的 繼承, 두 가지 類型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繼承하는 家系에 따라 그 神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 神은 常設的인 祭場이 없이 必要한 때에 집에서 굿을 하여 청해 위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 안의 집 뒤의 空間 또는 집 안의 고광(庫房은 穀物을 보관하는 방)에 常設的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다. 傳承을 종합해 보면 後者が 本來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 神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굿을 하여 위하는 것이 一般이고, 血緣祖上의 祭祀나 名節 때에도 반드시 祭物을 올려 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神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는 그 家族이 어떤 職業을 가지고 生計를 維持하든, 그것은 이 神이 그러한 能力을 부여해 주고 守護해 준 덕택이라고 하고, 집안의 여러 가지 幸・不幸・貧富의 原因이 다 이 神의 守護 如何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경향이 짙다.

이들 神에도 部落守護神이나 一般神처럼 본풀이라는 神話가 傳承되고 있어, 그 神의 性格이나 모시기 시작한 來歷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본풀이는 多樣하지만, 分析하여 보면 그 神들의 性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祖靈의 性格

이 神들의 본풀이를 分析해 보고서 첫째 느낄 수 있는 것은 祖靈의 性格이다. 그것은 이미 言及한 바 있는 그 名稱에서부터 나타난다. 血緣祖上과는 別個의 것이라고 區別하면서 <조상(祖上)>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은 벌써 祖靈의 性格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神들의 본풀이를 檢討해 보면 이 祖靈의 性格도 몇 개의 다른 케이스가 있다.

첫째는 實際의 血緣祖上 중에서 官職 또는 富의 면에서 傑出한 先祖를 守護神으로 모시는 경우다. 그 事例를 몇 개 보기로 하자.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는 約 400年前 孔氏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開拓했다고 전하는 海村인데, 지금은 그 孔氏의 子孫은 한 사람도 없고, 孔氏 다음에 入住한 星州李氏, 全州李氏, 坡平尹氏의 子孫들이 主氏族을 이루고 있다. 이 星州李氏, 坡平尹氏는 入住 후 얼마 없어 富者가 되고, 星州李氏는 萬頃令, 宣傳, 全州中軍, 濟州判官 등의 官職을 대대로 하여 번영하고, 坡平尹氏는 大靜縣監을 2대에 걸쳐 지낸 祖上을 가진 氏族이다. 그런데, 이 星州李氏의 子孫의 집안에서는 萬頃令을 지낸 先祖를 守護神 곧 <조상>이라 하여 모시고, 坡平尹氏의 집안에서는 大靜縣監을 지낸 先祖를 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星州李氏 집안의 守護神인 <조상>을 <이만경(李萬頃)>이라 하고, 坡平尹氏 집안의 守護神인 <조상>을 <윤대장(尹大靜)>이라 한다. 이 마을의 심방이 口誦하는 <이만경본풀이>에 의하면 星州땅에서 3兄弟가 入島하여 갈라져 살았는데, 北村里에 入住한 兄이 부자가 되고 黑馬 300 필을 임금님께 진상하여 萬頃令의 벼슬을 얻었다고 하여, 이 <조상>을 잘 위하면 所願成就하고 집안이 번창한다고 한다. <윤대장본풀이>도 그 人物이 傑出하여 大靜縣監의 벼슬을 얻게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²⁾

2)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仁珠 口誦.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 新丘文化社, pp. 843 ~ 851 參照.

本貫이 濟州인 濟州梁氏 중, 明月派의 집안에서는 濟州牧使를 지낸 先祖를 守護神으로 모신다고 한다. 이 神의 본풀이를 <양이목스(梁牧使) 본풀이>라고 한다. 이 본풀이에 따르면 梁牧使 當時 濟州島에서는 白馬 100 필을 每年 進上하게 되어 있는데, 梁牧使는 이에 반대하고, 白馬 100 필을 陸地로 실어 가서 팔고, 그 돈으로 島民의 必需品을 사서 돌아오고 있었다. 이것이 朝廷에 알려져 禁府都使가 파견되고, 梁牧使는 돌아오는 途中 배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 때, 梁牧使의 몸통은 먼저 바닷물로 떨어져 龍이 되어 龍王國으로 들어가고, 머리는 「代代孫孫 나를 모셔서 역사를 전하라」는 遺言을 남겼다. 그래서 그 子孫들이 이 祖上을 守護神으로 모셔 내려오게 되었다 한다.³⁾

이 神은 有名한 官職을 지낸 先祖임과 동시에 非命에 죽은 冤魂이라는 면도 注意를 끌게 하는데, 다음 예는 巨富가 된 先祖가 守護神이 된 事例다.

羅州金氏의 어느 先祖로부터 모시기 시작한 <조상(守護神)>에 구실할망이라는 神이 있다. 본풀이에 따르면 옛날 朝天面 新村里에 살던 金氏船主가 서울에 進上하러 갔다가 許政丞의 딸과 인연을 맺고 제주로 데려 왔다. 夫婦가 되어 가난한 살림을 시작했는데, 이 妻가 海女의 作業光景을 보고는 갑자기 자기도 海女일을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海女作業을 시작하니 소라 전복이 엄청나게 잡히는 물론, 전복 속에서 眞珠가 계속 나왔다. 남편인 金氏船主는 그 眞珠을 모아 千斤을 임금께 바치니, 임금은 金氏船主에게 同知 벼슬을 내려 주고, 그 부인에게 七色 구슬과 비녀, 반지등을 下賜했다. 그래서 구실할망이라 불리게 되었다. 부부는 딸 아홉을 낳고 살다가 죽어 갈 때, 딸 뒤를 따라갈 터이니 위해달라고 하여 그 딸에서 딸로 위해 내려오게 되었다 한다.⁴⁾

이 神은 實在의 先祖이지만, 神으로 모셔지게 된 이유의 하나에 巨富가 되었다는 면이 있고, 거기에는 富神으로서의 性格이 숨겨져 있는 것도 記憶할 만한 것이다.

둘째는 祖靈으로서의 性格은 다름이 없지만, 그 祖靈이 冤魂이라는 점이 다. 그 중에도 處女's 死靈을 모신다는 傳承이 많다.

3)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玄容駿 著 pp. 804 ~ 810 參照.

4)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 798 ~ 804 參照.

예를 들면 北濟州郡 舊左面 金寧里의 宋氏 집안에서는 어느 先祖의 愛人 이었던 處女의 死靈을 守護神으로 모신다고 한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先祖인 宋船主가 進上하러 서울에 갔다가 許政丞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進上 때는 또 許政丞 집엔 들러 보니 그 딸은 이미 妊娠한 몸이 되어 있어, 울면서 宋船主를 따라오려고 했다. 당시는 本土 사람과 濟州 사람의 移住가 禁止되어 있는 때이므로 宋船主는 단호히 거절하고 달려와 혼자 배를 띄웠다. 그 순간, 뒤따라와서 배에 타려던 許政丞 딸은 발을 헛디디어 물에 빠져 죽었다. 宋船主는 어떤 處女가 배에 기어오르려는 것을 환각처럼 느끼면서 배를 놓았는데, 金寧里에 도착하니, 마중 나왔던 宋船主의 딸이 許政丞 딸의 死靈이 지퍼서 허둥댄다. 곧 심방을 불러서 死靈을 위로하고 셋째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하여 모시도록 했다. 그로부터 宋船主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셋째 아들은 武科 及第까지 했다. 그래서 그 子孫들은 이 死靈을 〈조상〉이라 하여 고평(庫房)에 모셔 내려오고 있다 한다.⁵⁾

南濟州郡 南元邑 禮村 梁氏宅에도 處女로 죽은 祖靈을 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다 한다. 이 〈조상〉을 〈양씨아미〉 또는 〈양씨일월〉이라 하는데, 그 본풀이에 따르면 이 祖上은 일곱살 때부터 열 다섯 살까지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마을의 굿하는 집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는 갑자기 춤을 추며 굿을 하여 심방이 되었다. 그로부터 세상일을 무엇이든지 알아 맞히는 큰 심방이 되었는데,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갔던 오빠가 파선하여 죽음을 알고, 비통해 하다가 自身도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조상〉이라 하여 모시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⁶⁾

이와 비슷한 이야기의 〈조상〉神은 城山邑 新川里에 있다. 〈玄氏日月〉이라 불리는 이 神은 본래 이 마을에 살던 處女인데, 漁夫인 오빠와 둘이서 살면서 심방이 되어 巫業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갔던 오빠가 破船되어 죽음을 알고 누이도 슬퍼해 한 나머지 烽燧臺에서 떨어져 自殺하느라 말았다. 이 마을엔 玄氏들이 많이 사는데, 이 玄氏들이 이 死靈을 〈조상〉神으로 위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씨일월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져 마

5)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 828~834 參照.

6)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 838~842 參照.

을 사람들이 모두 위하고 있다. 그 당 옆에는 그 死靈의 무덤이라는 墓까지 남아 있다.⁷⁾

셋째는 특수한 職業을 시작한 先祖를 〈조상〉이라 하여 守護神으로 모시는 경우다. 이를테면 先祖 중에서 누군가 擇日, 地官, 漢醫 등의 職業을 가졌었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는 〈책불일월〉⁸⁾이 있다 하여 위하고, 狩獵을 했던 先祖가 있으면 〈山神日月〉이 있다 하여 위한다. 山神이란 山의 神인데, 狩獵을 守護하는 機能이 있다. 또 先祖중에 삼승할망(助産役을 하고 産神에 대한 小規模의 儀禮를 행하는 女巫)이 있었으면 〈불도일월〉이 있다 하여 위한다.⁹⁾ 불도(仏道)란 産育神의 異稱이다.

이와 같이 先祖의 職業의 種類에 따라서 여러 가지 名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職業을 가졌던 血緣祖上 그 자체를 神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先祖를 그러한 특수한 職業으로 成功하게 守護해 준 神을 모시는 것이라고 觀念하기도 한다. 이러한 事實은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이 祖靈의 性格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生業守護神의 性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生業守護神의 性格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에는 血緣祖上이 아닌, 生業守護神의 性格의 것이라는 型의 傳承을 여러 개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先祖가 처음으로 모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神으로, 그 후 그 子孫들이 이어받아 모셔 내려왔다고 하는 것들이다. 事例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朝天面 朝天里 安氏 집안의 守護神은 본래 羅州 飢民倉(庫)의 쌀을 지키던 蛇神이었다. 이 집안의 어느 先祖인 安氏船主가 흉년 때 島民의 生命을

7) 1974年 2月 筆者 調査. 이 마을에서는 新年 部落祭를 마을의 本鄕堂인 고춧당에서 巫式의 굿으로 지낸 후, 마을 사람들이 이 玄氏日月堂에 모여 와서 祭物을 올리고 巫式의 祈願을 함.

8) 책불일월이란 「책을 보는 일월조상」이라는 뜻이다. 擇日, 地官, 漢醫 등은 항상 책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9) 책불일월, 山神日月, 佛道日月 등의 본풀이는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pp.855~857 參照.

구하기 위해 쌀을 사러 羅州에 갔다. 飢民倉의 쌀을 사서 배에 싣고 出帆 하려는 순간, 어떤 處女가 배에 오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는데 곧 處女 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참 오더니 갑자기 風浪이 일고 배 밑이 터져 물이 들기 시작했다. 宋船主는 祈願을 하다가 무심코 보니 큰 뱀이 배 밑의 터진 구멍을 막아서 배는 둥둥 뜨고 있었다. 덕택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 날 밤 꿈에 蛇神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羅州 飢民倉을 지키던 〈조상〉인데, 飢民倉이 비어가니 質穀을 따라왔노라. 朝天館 새콧알로 좌정하여 三千潛嫂 一萬漁夫 차지하고 子孫에 상 받아 좋은 재산 이루어 주마」고 했다. 그로부터 〈조상〉으로 모시기 시작하여 내려왔다는 것이다.¹⁰⁾

朝天面 善屹里 安氏 집안의 守護神도 또한 富의 蛇神이었다. 安東에서 入島하여 善屹里에 定着한 先祖 三兄弟가 어느 날 비를 피해 바위 밑에 앉아 있더니 귀 달린 큰 뱀이 나타났다. 막내동생이 上衣를 벗어내어 「저의 祖上이로구나. 이리 오르십시오」하니, 뱀이 기어올라 와 누웠다. 곧 모셔가서 집터 윗밭에 모시니 일시에 巨富가 되고 通政大夫, 嘉善大夫, 濟州判官 등 벼슬이 대대로 나서 집안이 번창했다.¹¹⁾ 이렇게 하여 〈조상〉神으로 모셔 내려왔는데, 그 후, 이 神의 노여움을 받아 집안에 不運이 계속되므로 濟州市 三徒洞에 살던 高氏 심방을 빌어 굿을 했다. 이 蛇神은 安氏 집안에 더 있어야 이미 기울어져 가는 집안이라 먹어볼 것이 없다 하여 굿을 마치고 돌아오는 高氏 심방을 따라왔다. 高氏 심방은 이 神을 모시면서부터 일시에 巨富가 되고 大靜縣監 벼슬까지 했다. 그로부터는 高氏 집안의 〈조상〉이 된 것이다.¹²⁾

濟州市 禾北洞 安氏 집안의 守護神은 바다에서 올라온 彌勒石像이라 한다. 옛날 어느 先祖가 고기를 낚으러 바다에 갔는데, 고기는 아니 물고 저녁 때가 되어 彌勒石像이 낚시에 걸려 올라왔다. 이것이 나의 〈조상〉임에 틀림없다. 생각하고 가져와 모시니 巨富가 되고 文科及第까지 났다.¹³⁾

이와 같은 事例들에서 보면 이 神들은 확실히 富神의 性格의 것이라 할 수

10)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玄容駿 硯稿 pp.786~797 參照.

11)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仁珠 口誦. 같은 책 pp.851~853 參照.

12)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811~823 參照.

13)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834~838 參照.

있다. 그러나 집안이 부자가 되고 번창한 것은 生業이 번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富神的인 것은 결국 그 집안의 生業守護神의 性格이 되는 것이다.

富神의 性格의 守護神은 위에 든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一般神類의 하나인 칠성(富神으로서의 蛇神), 도깨비神인 영감, 그 외 자기 고향의 堂神(部落守護神)을 <조상>이라 하여 모시는 집안도 꽤 있다. 칠성은 女神으로 人格化되어 있는 蛇神으로서 주로 穀物을 지켜 주어 富를 일으켜 준다 한다. 영감이라 敬稱하는 도깨비는 鬼火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男子로 人格化되어 있는 神인데, 이것은 정성스레 모시면 부자가 되고, 만일 소홀하여 푸대접하면 일시에 망하게 해 버린다고 한다. 農家가 이 神을 모시면 魚群을 한 곳에 몰아다가 잡게 해 준다고 하는 식의 神이다. 이들 神들도 역시 <조상>이라 하여 고향(庫房)에 모시는 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生業守護神의 性格의 것이다.

이들 富를 일으켜 주는 守護神이 위의 例에서 본 것처럼 蛇神이 많다는 것은 주의해 둘 만한 것이다.

3. 災殃神의 性格

以上の 諸例에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 守護神은 정성껏 모시면 집안이 번영하고, 소홀히 모시면 殃禍를 주어 不運이 계속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災殃神의 性格이 있다. 이것은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의 共通한 性格이지만 특히 冤魂의 性格의 <조상>에 뚜렷하다. 冤魂의 性格의 <조상>에는 주로 處女의 死靈이나 非命에 죽은 死靈이 많은데, 이런 死靈은 저승에 가지를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다가 틈만 있으면 사람에게 범접하여 殃禍를 준다고 一般은 생각하고 있다. 冤魂의 性格의 <조상>이 이런 性格이 있으므로 정중히 모시지 않으면 殃禍를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 神들은 정중히 모시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 모시기 시작한 것부터가 殃禍 때문이라는 傳承이 있다. 濟州市 奉蓋洞 明道庵 高·金 兩氏 집안의 <조상>이 그 一例가 된다. 이 <조상>의 본풀이를 <고전적본풀이>라 하는데, 그것에 따르면 高典籍 아들이 旌義縣監으로 있을 때, 서울에

다녀오면서 물색옷을 사다 딸에게 주었다. 선물을 받은 딸은 갑자기 精神異常者처럼 되어 밤중에 약혼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춤추며 돌아다닐 정도였다. 점을 쳐 보니, 한양일월조상(漢陽日月祖上)이 물색옷에 따라왔다고 하므로 이 神을 달래기 위해 굿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친은 양반의 집안에서 굿은 할 수 없다고 하여 단호히 굿을 못하게 했다. 굿이 中斷되자 딸과 제집종과 심방까지 그 날 죽어 버렸다. 그로부터 그 高氏 집안과 딸의 약혼자인 金氏 집안에서 이 〈한양일월조상〉을 모셔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¹⁴⁾

以上の諸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은 祖靈의 性格, 生業守護神의 性格, 災殃神의 性格이 현저하다. 따라서 이 信仰은 祖上崇拜를 基盤으로 해서 거기에 生業守護神, 其他의 信仰이 複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神들은 본래 한 집안 레벨의 것으로서 그 집 안에 모시고 있던 것이었는데, 子孫들이 그 信仰을 繼承함에 따라 信仰의 범위가 親族, 氏族으로 擴大되어 간 것이라 보인다.

III. 部落守護神

部落守護神은 部落民 共同的 祭儀 對象이 되는 堂神을 말한다. 堂은 自然部落마다 하나 이상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部落 안의 土地나 部落民의 生活全般을 차지하여 守護하는 本鄉堂이고, 나머지는 產育神, 治病神, 海神, 農神, 蛇神 등 갖가지 機能의 堂이다.

이들 堂神에도 본풀이가 傳承되고 있어 그 信仰來歷을 살필 수가 있다. 그 分析을 통하여 神의 性格을 整理해 보기로 하자.

1. 祖靈의 性格

堂神의 性格 중, 첫째 눈에 띄는 것은 祖靈의 性格이다. 그것은 다음과

14)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같은 책 pp.823~828 參照.

같은 몇 가지 根據에서 推察된다.

첫째 部落神인 堂神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실이다. 儒敎式 祭法으로 모시는 血緣祖上과는 물론 區別하면서 둘 다 조상이라는 名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堂神信仰이 祖靈信仰의 基盤에서 成立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둘째는 이 假說을 뒷받침하는 根據의 하나로 그 神名을 姓氏를 붙여 부르고 있는 곳이 많은 점이다. 이러한 傾向은 全島의이지만, 濟州市 西部로부터 翰京面 一帶까지에 특히 짙다.

濟州市 梨湖洞, 老衡洞의 各自然部落의 本鄉堂神의 이름은 宋氏할망이고, 濟州市 奉蓋洞의 本鄉堂神은 金氏할망, 姜氏할망, 梁氏할망, 셋이다. 濟州市 外都洞의 큰당의 神은 金氏하르방이고, 翰林邑 明月里의 堂神은 鄭氏夫人, 安德面 西廣里의 堂神은 高氏夫人이다. 이것들은 堂神이 獨身으로 되어 있어서 姓氏에 〈하르방(할아버지)〉, 〈할망(할머니)〉, 〈夫人〉 등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의 堂神이 夫婦神으로 되어 있어서 〈하르방〉 〈할망〉, 〈영감〉 등을 姓氏에 붙여서 부르는 것도 많다.

濟州市 竹城의 堂神은 高氏할망, 金氏영감 夫婦이고, 涯月面 鳳城里的 堂神은 文氏영감과 吳氏할망 夫婦이며, 同面 召吉里의 堂神은 張氏하르방, 宋氏할망 夫婦이다. 涯月面 東貴里, 光令里, 水山里 등의 堂神은 金氏하르방과 宋氏할망, 同面 長田里의 堂神은 田氏할망과 姜氏도령, 翰京面 板浦里의 堂神은 鄭氏하르방과 金氏할망이다.

이와 같이 夫婦神名에 姓氏가 붙을 뿐 아니라, 거기에 山神, 海神, 產神 등의 機能을 나타내는 名稱을 더 붙여 부르는 神名도 곳곳에 보인다. 濟州市 吾羅洞의 도노미部落의 堂神은 山神大王 金氏하르방과 宋氏할망, 同市 吾登洞의 堂神은 金氏할망天神佛道와 高氏令監山神日月이고, 涯月面 下貴里의 海神堂의 神은 海神인데도 吳氏할망이라 한다. 山神大王 또는 山神日月이란 狩獵을 守護하는 山神이고, 天神佛道란 產神의 機能의 神을 말한다. 이와 같이 部落守護神의 이름에 姓氏가 붙고, 그것이 夫婦神으로 되어 있고 또는 山神, 佛道 등의 職能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은 그 部落의 開拓先祖이거나 또는 먼 祖上의 崇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部落守護神의 이름에 姓氏가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神의

姓氏와 信仰民인 部落民의 姓氏가 一致하는 것이 보이는 일이다.

濟州島에서는 堂神을 信仰하는 部落民은 〈단골〉이라 하고, 信仰民이 몇 개의 姓氏로 構成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氏族들을 上단골, 中단골, 下단골이라 하여 上·中·下로 區別하여 있다. 가령 A部落이 金氏, 李氏, 朴氏라는 氏族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하면 上단골은 金氏 집안, 中단골은 李氏 집안, 下단골은 朴氏 집안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단골制는 部落信仰에 있어서의 階層과 같은 것이어서, 部落祭 때에 단골 별로 좌석의 차례가 정해 있다든지, 堂의 管理責任은 上단골이 진다든지, 當곳의 祭物은 上단골이 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權利義務關係가 있다. 調査해 보면 이 단골 중에서 上단골이 가장 先住氏族이고, 그 堂神을 最初로 모시기 시작한 氏族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南濟州郡 表善面 細花里의 本鄉堂神의 姓은 玄氏인데, 또 그 上단골의 姓도 玄氏이다. 본풀이에 의하면 이 神은 松堂에서 솟아난 神의 아들인데, 차지할 마을을 찾아 松堂에서 내려왔다. 이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玄氏영감을 만나고, 「너는 누구냐?」고 묻자, 「玄氏입니다. 어떤 어른이 되십니까?」 「아, 同姓이로구나. 나도 玄氏다. 나는 松堂神의 아들로써 이 마을을 지켜 주려고 내려왔노라. 나를 인도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玄氏영감이 上단골이 되어 이 神을 堂神으로 모시고, 金氏, 鄭氏, 康氏가 각각 中·下단골이 되어 같이 위하게 되었다 한다.¹⁵⁾

위에서 例示한 城山邑 新川里의 玄氏日月堂의 경우도 그 堂神인 玄氏 男妹의 무덤이라는 墓가 실지 있고, 그 神의 上단골은 역시 玄氏로 되어 있다.

이처럼 神과 信仰氏族의 姓氏가 一致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偶然이라 생각할 수 없다. 部落의 開拓先祖이거나 먼 祖上과 그 子孫의 關係는 아니었을까?

넷째는 이와 같은 關係를 뒷받침하는 事例로 部落를 開拓한 實存人物을 堂神으로 위하는 部落가 있는 점이다. 舊左面 東福里의 경우가 그 一例이다. 이 部落의 堂神 굴목밭할망은 이 部落이 設村될 당시, 굴목밭이라는 밭에 살았던 實在人物이라 한다.¹⁶⁾ 많은 事例를 주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은 一

15) 表善面 細花里 男巫 愼明玉 口誦. 같은 책 pp.703~706 參照.

16)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仁珠 口誦. 같은 책 pp.627~635 參照.

連의 傳承은 堂神이 開拓先祖 또는 먼 祖上의 靈魂이었을 可能性을 질게 한다.

다섯째는 信仰民의 血緣祖上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과거의 傑出した 人物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部落이 많이 보인다.

南濟州郡 城山邑 城山里의 堂神에 金通精이 있는데, 이 人物은 三別抄의 우두머리로 濟州에서 抵抗하다 죽은 高麗의 將軍이고,¹⁷⁾ 同邑 三達里의 堂神 禦侮將軍은 逆賊으로 몰려 濟州島로 避身해 온 人物이라 하며,¹⁸⁾ 安德面 和順里의 堂神 高성목은 이 마을에 살던 큰 부자였다고 하고,¹⁹⁾ 南元邑 禮村里的의 堂神 許座首도 實在人物이었다 한다.²⁰⁾

여섯째는 信仰民과의 血緣關係는 분명하지 않으나, 處女의 死靈이라든가, 非命에 죽어 간 冤魂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部落이 곳곳에 있는 점이다. 몇 개의 事例를 보면 朝天面 新興里의 堂神은 朴氏할망인데, 그녀는 15歲 때에 海女作業을 하던 중 倭船을 만나고, 그 船員이 挾持하려고 하므로 現在의 新興里의 神木 아래까지 도망와 죽어서 堂神이 되었다고 하며,²¹⁾ 安德面 沙溪里의 堂神은 吳氏아미인데, 이 神은 본래 이 마을에 있는 大靜鄉校의 守僕의 딸이었다 한다. 그녀는 매우 美貌여서 鄉校에서 修學하는 양반의 아들들에게 귀여움을 받았고, 그 중 어떤 青年을 思慕하게 되었다. 그러나 當時의 社會階層上 양반 子弟와 結婚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다. 그래서 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다.²²⁾

韓國의 最南端의 섬, 馬羅島의 堂神은 본래 大靜邑 慕瑟浦의 어떤 집안의 아기엽저지였는데, 어느 날 주인과 같이 이 섬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風浪이 높아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날밤 주인의 꿈에 白髮老人이 나타나, 處女(아기엽저지)를 남겨 놓고 떠나라 하므로 그녀를 남겨둔 채 배를 띄우니 물결이 잔잔했다. 그 후, 이 섬에 사람이 살게 되자, 혼자 남겨져 굶어 죽은 이 處女의 영혼을 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²³⁾

17) 表善面 細化里 男巫 愼明玉 口誦. 같은 책 p.686 參照.

18) 城山邑 新山里 女巫 金永善 口誦. 같은 책 pp.689~693 參照.

19) 安德面 和順里 男巫 許斗平 口誦. 같은 책 pp.772~773 參照.

20) 南元邑 下禮里 男巫 高南辰 口誦. 같은 책 pp.730~733 參照.

21) 濟州市 一徒洞 女巫 夫氏 口誦. 같은 책 p.603 參照.

22) 安德面 沙溪里 男巫 吳己出 口誦. 같은 책 p.773 參照.

23) 加波國民學校 馬羅分校長 談

安德面 柑山里의 여드렛당神은 본래 朝天面의 李訓長 딸이었는데, 柑山里의 吳座首를 戀慕하여 그의 집까지 따라왔는데, 吳氏 집안에서 학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의 집 앞에서 원한을 안은 채 죽었다. 그 후, 吳氏 집안에 殃禍가 계속되므로 모시기 시작하고 드디어 堂神이 되었다고 한다.²⁴⁾

이와 같이 冤魂을 堂神으로 모신다고 전하는 部落은 西歸浦市 中文洞 河源, 城山邑 始興里, 表善面 兎山里 등 적지 않다.

以上の 諸事例은 部落神信仰이 祖靈崇拜의 性格을 띠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본다.

2. 生業守護神의 性格

堂神 중에는 祖靈의 性格보다도 狩獵, 農業, 漁業, 畜産 등 部落民의 生業을 守護하는 神으로서의 性格이 더 두드러진 것이 많이 보인다.

먼저 狩獵을 守護하는 神은 山神, 山神大王, 山神百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山神의 主職能은 山에 있는 動物의 狩獵을 補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山神系統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濟州市 龍崗, 月坪, 吾登, 朝天面, 臥屹, 橋來, 南元面 水望, 爲美, 禮村, 西歸浦市 好近, 西好, 表善面 加時里 등 주로 山間 내지 中山間部落에 많다. 이것은 그 部落民의 옛날의 生業과 깊은 關係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狩獵이 없어지고, 神의 性格도 狩獵의 守護라는 側面이 전혀 없어져 버렸거나, 혹은 약간의 殘影만 남기고 있을 뿐이고, 表面的으로는 部落守護神으로 간주되고 있다. 過去에는 狩獵의 守護라는 職能이 表面에 드러나 있던 것이라 생각된다.

山間部落의 堂神에 山神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中山間部落의 堂神에는 農神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많이 보이고, 海岸部落에는 海神의 이름의 堂神이 많이 보인다. 農神의 이름은 <세경>이라 하는데, 濟州市 老衡洞 廣坪, 梨湖二洞, 吾羅洞 등, 農村의 堂神이 많이 보인다. 이 農神은 지금은 堂神보다도 一般神으로서 全島의 一般化되어 있다.

漁業神은 海神이라는 이름외에 <개당할망>, <개하르방>, <개할망>,

24) 安德面 倉川里 男巫 高昌鶴 口誦. 같은 책 pp.767~770 參照.

〈龍女夫人〉, 〈龍王〉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系統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일일이 그 事例를 들 필요도 없이 모두 海岸部落에 모셔지고 있다. 中山間部落에서는 주로 農業을 경영하고, 海岸部落에서는 漁業에 종사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 生業의 守護神으로서 農神 또는 漁業神을 모셨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濟州市 서쪽의 涯月邑, 翰林邑, 翰京面 一帶에는 部落의 堂 이름이 거의 丑日堂, 午日堂 혹은 戌日堂이라 부르고 있고, 그 神名도 〈丑日할망, 하르방〉, 〈午日할망, 하르방〉, 〈戌日할망, 하르방〉과 같이 부르고 있다.

丑日堂은 그 祭日이 丑日인 데서, 午日堂은 午日, 戌日堂은 戌日인 데서 붙여진 이름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祭日은 그 神들의 職能과 같은 干支의 날로 정해진 것 같다. 즉, 소의 守護神은 丑日로 말의 守護神은 午日로 그 祭日을 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丑日堂은 본래 소의 守護神을, 午日堂은 말의 守護神을 모신 堂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戌日堂도 이 原理대로 개의 守護神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 神은 개의 守護神이 아니라, 漁業의 守護神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위에서 漁業守護神의 堂을 〈개당〉이라 하고, 그 神名을 〈개당할망〉 등이라 부르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 〈개(浦)〉와 動物의 〈개(犬)〉가 同音異義語이므로, 개당(浦堂)의 祭日을 〈개(浦)〉와 同音의 干支인 戌日(개날)로 정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본래의 意味를 잃어 버리게 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部落守護神 중에는 본래 部落民의 生業에 重點을 두어 生業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던 것인데 部落守護神으로 된 것이 꽤 많다.

3. 產育神, 治病神의 性格

堂神은 全般的으로 봐서 祖靈의 性格, 生業守護神의 性格이 현저하지만, 주의해서 보면 이 외로 產育神, 治病神 등 여러 가지 職能의 神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產育, 治病 등의 職能은 한 神이 그 職能의 한 가지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神은 이 두 가지 職能을 함께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朝天面 臥屹里의 불도당(仙道堂)의 神은 <불도삼승>이라 하는데, 이 神은 본래 玉皇上帝의 막내딸로 不孝罪로 쫓겨나 臥山里의 山頂에 내려와 바위가 되었다. 어떤 자식 없는 부인이 집을 쳐 보니, 이 산에 있는 바위를 위하라고 하므로 그대로 위했더니 자식을 낳았다. 그 후 자식 없는 사람이 점점 많이 위하게 되고 마침내는 堂神이 되었다고 한다.²⁵⁾ 이 神은 祈子의 効驗에 重點이 두어지고 있는데, 濟州市 吾登洞, 老衡洞, 梨湖二洞 龍潭一洞 등 여러 部落에는 <여리불도(如來仙道)>, <천신불도(天神仙道)> 등이라 불리는 神을 守護神과 함께 모셔서, 祈子와 養育에 効驗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이들 部落에는 <넋짓도>라는 神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 이 神은 허물, 옴 등 皮膚病의 治療에 効驗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섬 전체를 돌면서 調査해 보면 每月 1日, 17日, 27日에 祭 지내는 일렛당(<七日堂>)이라는 堂이 全島의으로 分布되고 있는데, 이 神은 女神으로서 아이의 養育을 도와줌과 동시에 眼疾, 설사, 허물, 옴 등의 治療에 効驗이 있다고 한다.

이런 類의 神들은 처음에는 個人 레벨의 神으로 모셔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점차 모시는 자가 늘어나서 部落의으로 共同致祭하게 되고 部落神化한 것이라 보인다.

4. 災殃神의 性格

위에서 말한 모든 部落神에 共通한 性格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정중히 모시지 않으면 곧 殃禍를 준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部落內에 疾病, 死亡, 凶作, 牛馬의 被害 등 不幸이 계속 일어나면 堂神을 잘 모시지 않은 때문이라 보고, 盛大한 당굿을 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堂神을 처음 모시기 시작한 것 자체가 殃禍 때문이라는 傳承이 많은 堂神본풀이에 보인다.

몇 개의 事例를 들면 朝天面 北村里의 本鄉堂神은 舊左面 松堂神의 아홉

25) 朝天面 威德里 男巫 高明善 口誦. 같은 책 pp. 618~620 參照.

째 아들인데, 北村里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部落民은 이를 모르고 아무도 모셔주는 자가 없었다. 이에 神은 靑天白日에 雷震霹靂을 일으키고 마소를 急死시키고, 農作物에 風害를 주고, 어린 아이에게 驚症을 주고, 어른에게 急病을 주는 등 갖가지의 殃禍를 내렸다. 部落民들이 그제야 그 原因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白髮老人의 모습으로 나타난 神을 발견하여 그 사실을 듣고 알았다. 그래서 잘 모시면 災禍를 견어준은 물론, 部落民의 生活를 편안하게 지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로부터 堂神으로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²⁶⁾

舊左面 金寧里의 일렛당神은 江南天子國에서 들어온 龍女夫人인데, 이 神은 每月 7日에는 위하러 와 줄 것을 앉아서 기다리고, 7日에 와서 위하지 않으면 17日에는 서서 기다리고, 17日에 위해 주지 않으면 27日에는 누워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와서 위해 주지 않으면 部落民에게 움, 허불, 설사, 이질 등을 일으켜서 모심을 받는다고 한다.²⁷⁾ 舊左邑 月汀里의 本鄉堂神은 처음 모심을 받기 위해 部落民에게 頭痛, 嘔吐, 설사, 腹痛을 주어서 神으로서의 認定을 받고 돛제(豚祭)를 받기 시작했다 하고,²⁸⁾ 舊左邑 杏源里의 堂神의 하나에 江源道에서 入島했다고 전하는 大師중이 있는데, 이 神은 조발에 凶作을 주어서 모심을 받았다 하며,²⁹⁾ 舊左邑 細花里의 本鄉堂神인 금상님은 서울 南山에서 솟아난 名將으로 이 堂의 美貌의 女神 백주모를 흠모하여 入島한 神인데, 이 神은 結婚하는 新婦에게 急病을 주어 돛제(豚祭)를 받아 먹기 시작했다고 전한다.³⁰⁾

城山邑 始興里 本鄉堂神에 夫氏할망이라는 神이 있는데, 이 神은 본래 이 堂의 매인심방(專屬巫)이었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이 夫氏할망을 죽이고 불타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가슴에 모닥불을 사르고 도망가 버렸다. 그 후 神으로 위하게 되었는데, 이 神에 걸리면 특히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다고 한다.³¹⁾

26)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仁珠 口誦. 같은 책 pp.608~615 參照.

27)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같은 책 pp.648~649 參照.

28) 舊左邑 杏源里 男巫 李仲春 口誦. 같은 책 pp.649~655 參照.

29) 舊左邑 杏源里 男巫 李仲春 口誦. 같은 책 pp.656~659 參照.

30)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같은 책 pp.670~676 參照.

31) 舊左邑 漢東里 男巫 許丁花 口誦. 같은 책 pp.681~686 參照.

以上, 몇 개의 事例에서 본 바와 같이 堂神은 祖靈的, 生業守護神的, 治病神的, 갓가지 性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 災殃神的 性格을 共有하고 있는 것이다.

5. 土地神의 性格

위에서 指摘한 部落神의 性格은 部落 레벨로 모시고 있는 모든 堂神의 性格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하나의 部落에는 하나의 堂이 있고, 그 중의 하나는 특히 本郷堂이라 해서 部落民의 生活全般을 守護하는 神, 즉 部落守護神으로 되어 있다. 이 守護神이 部落에 따라 開拓先祖, 冤魂, 혹은 山神, 海神, 治病神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性格을 內在하고 있는 셈인데, 그 중 특정의 神이 部落에 따라 表面的으로는 部落守護神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本郷堂神의 職能은 具體的으로 말하면 部落境內의 土地, 山水, 나무 등의 自然의 主人임과 동시에 部落民의 戶籍, 出產, 死亡, 生業 등 生活全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土地, 山水 등 自然의 主人이라 하는 것은 그 境內의 土地의 임자와 같은 性格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本郷堂神을 지금도 〈土主官〉 또는 〈土地官〉이라고 부른다.

本郷堂神들의 본풀이를 보면 外地에서 入島한 神들이 자기가 차지할 部落을 찾아 돌아다닐 때, 이미 先占한 神이「土地官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 마을 땅도 물도 산도 나무도 모두 내 차지다. 다른 마을로 가 보라」고 하여 거절하는 場面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저기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직 차지한 神이 없는 마을을 찾아내어 定着하는 過程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事實은 처음 開拓先祖가 定着地를 選定해서 開拓하기 시작한 過程의 反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 論述해 온 바와 같이 堂神은 本來 多樣的 性格의 神들이었다. 그 중에도 두드러진 性格은 祖靈的, 生業守護神的, 產育神的, 治病神的, 災殃神的 性格인데, 이런 性格의 神들 중에서 어떤 特定の 神이 部落形成過程의 特殊條件에 따라 土地의 主人인 土地神의 性格을 띠게 되고 部落守護神으로 되어 간 것임을 알 수 있다.

IV. 神들의 形成

이제까지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인 〈조상〉神과 部落守護神인 堂神의 性格을 檢討해 왔다. 이 檢討에서 分明해진 것은 두 種類의 神이 거의 類似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두 가지의 神들이 祖靈的, 生業守護神的, 災殃神的 性格 등 전혀 一致한 性格을 가지고 있고, 本鄉堂神은 이러한 性格을 內在하면서 土地神的, 部落守護神的 性格을 表面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結局 같은 性格의 神들이 一家 레벨의 神으로 모셔지고 있느냐, 部落 레벨의 神으로 모셔지고 있느냐는 差異만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性格의 一致는 그 神들의 形成에 대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인가? 이 性格의 一致는 이들의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어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推定을 낳게 한다. 事實, 그것을 傍證하는 資料를 얼마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一家守護神에서 部落守護神으로의 變遷을 傍證하는 資料다.

그것은 먼저 그 名稱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一家守護神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동시에 部落神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一家守護神의 呼稱을 部落神에게 轉移시킨 것인데, 이 轉移는 단지 呼稱의 우연한 轉移가 아니라, 神自體의 轉移가 先行되어서 名稱의 轉移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은 現在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는 神이 部落神으로서도 모셔지고 있는 事實이다.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節에서 든 事例 중, 구실할 망神은 一家守護神이지만, 현재 朝天面 新村里의 堂神으로도 모셔져 있고, 본래 羅州 飢民倉의 쌀의 神이었다는 安氏 집안의 守護神은 지금 濟州市 外都洞, 道頭洞, 朝天面 朝天里 등의 堂神으로도 모셔지고 있다. 濟州市 奉蓋洞의 高·金 兩氏 집안의 守護神이었던 〈조상〉神은 현재 奉蓋洞의 洞神으로 되어 있고, 表善面 加時里의 〈文氏아기〉라는 神은 一家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는 한편 그 마을의 部落神인 堂神으로도 모시고 있다.³²⁾ 또한 城山

32) 表善面 加時里 男巫 韓 白 口誦. 같은 책 pp.721~726 參照.

邑 新川里의 〈玄氏日月〉이란 〈조상〉神도 그 마을에 玄氏日月堂이라는 堂이 마련되어 部落民의 祭儀對象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神이 雙方의 崇仰對象이 되어 있는 事實은, 〈조상〉이라는 共通된 名稱을 아울러 생각하면 본래 一家守護神이었던 神이, 子孫들이 繼承해 감에 따라 그 信仰人이 增加하고, 共同祭場인 堂이 設置되게 되면서 드디어 部落 레벨의 神으로 轉化한 것임을 暗示해 주는 것이다.

이런 事實을 傍證해 주는 것에 그 祭場의 變遷이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一家守護神의 祭場은 울타리 안의 空間이거나 집 안의 高房(庫房) 따위였다. 그런데, 部落神인 堂神도 堂에 모시기 전에는 一家守護神인 〈조상〉처럼 信者(上단골) 집에 모셨었다는 事例가 꽤 있다.

安德面 和順里의 本鄉堂은 본래 그 堂神 〈高성목〉의 집터였다고 하며³³⁾ 西歸浦邑 中文洞 橋達里의 本鄉堂神은 본래 이 神의 司祭者이던 심방의 집에 모시고 있던 것을 지금의 堂으로 옮겨 모셨다고 한다.³⁴⁾ 西歸浦邑 東烘의 本鄉堂神은 最初로 만난 人間인 金氏令監이 引導하여 그의 집에 모셨었는데 며칠 지나자 神이 먼지냄새, 火食냄새, 人間냄새가 나서 좌정할 곳이 못된다 하므로 지금의 堂으로 옮겨 모셨다고 하며,³⁵⁾ 城山邑 三達里의 本鄉堂神은 본래 이 마을의 金氏令監의 집 高房(庫房)에 모시고 있었는데, 現在의 堂은 바로 그 집터라 하고,³⁶⁾ 表善面 細花里의 本鄉堂神은 자기와 同姓인 玄氏令監을 처음 만나 그의 집에 案内 받았지만, 개 소리, 닭 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 現在의 堂으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한다.³⁷⁾ 이와 같은 事例들은 部落神이 본래 一家守護神으로서 信者의 집에 모셔지고 있던 것인데, 共同祭場인 堂으로 옮겨지면서부터 部落神으로 되어 간 事實을 말해 주는 것이다.

一家守護神이 部落 레벨의 守護神으로 轉化하는 過程에는 두 가지의 經路가 있었음을 豫想할 수 있다. 그것은 縱的・血緣的 信仰의 繼承과 橫的・地緣的 信仰의 擴大다. 縱的 信仰의 繼承이라는 것은 어떤 先祖가 一家守護

33) 安德面 和順里 男巫 許斗平 口誦. 같은 책 pp.772~773 參照.

34) 中文面 中文里 男巫 姜哲年 口誦. 같은 책 pp.750~753 參照.

35) 西歸浦市 西歸洞 男巫 朴己出 口誦. 같은 책 pp.738~741 參照.

36) 城山邑 新山里 女巫 金永善 口誦. 같은 책 pp.689~693 參照.

37) 表善面 細化里 男巫 愼明玉 口誦. 같은 책 pp.703~706 參照.

神으로서 모시기 시작한 神을 그 子孫들이 繼承하여 계속 모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子孫들이 점점 增加해 가게 된다. 그래서 一家 레벨의 守護神이었던 것이 親族・氏族의 守護神으로 그 信仰範圍가 擴大해 가게 마련이다. 이 神을 모시기 시작해서 繼承해 온 氏族은 물론 그 部落을 開拓한 氏族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의 部落은 언제까지나 그 部落의 開拓氏族만의 占有地域일 수만은 없다. 거기에 다른 姓氏가 한 사람씩 移住해 오게 된다. 차례 차례로 들어오는 他姓의 사람들은 이미 權威가 있는 先住民의 守護神을 같이 모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血緣的으로 縱的 系譜를 따라 繼承해 오던 것이 血緣을 넘어서 橫的 關係로 信仰이 擴大되어 간다. 그렇게 되면 血緣的 觀念을 中核으로 하고 있던 信仰이 橫的 地緣的 意味를 띠게 되고, 共同祭場으로서의 堂이 마련되어서 共同致祭하게 된다. 이래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一家, 一族의 神의 性格은 잊어버리고 部落共同體의 守護神으로 되어 가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部落 레벨의 守護神으로 變遷해 간다 해도 처음에 그 神을 一家守護神으로 모시고 있던 집안의 子孫은 그 神의 信仰에 있어 後來者보다 특별한 權利와 地位를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先住氏族과 後來氏族과의 사이에 信仰的 階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곧 上단골, 下단골이라는 階層 區別인 것이다. 따라서 上단골 氏族은 그 部落의 開拓先祖의 子孫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事例는 많이 發見된다.

安德面 上倉里를 開拓한 氏族은 柳氏인데, 그 本鄉堂의 上단골은 지금도 柳氏이고, 同面 沙溪里의 本鄉堂神을 모시기 시작한 사람은 吳氏라고 하는데, 지금도 吳氏氏族은 上단골이다. 同面 柑山里의 일렛당神을 모시기 시작한 사람은 崔氏인데, 崔氏氏族은 지금도 역시 上단골이고, 西歸浦市 中文洞 穡達의 本鄉堂神의 上단골은 그 部落을 開拓한 金氏氏族이라고 전한다.

이와 같이 部落을 開拓한 氏族이 本鄉堂神의 上단골로 되어 있는 事實은 그 神이 部落의 開拓先祖 또는 먼 祖上의 崇拜와 結付됨과 동시에 그 上단골의 一家守護神이 部落守護神으로 變貌해 간 事實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全島 共通의 信仰對象인 一般神의 경우는 어떠한가? 위의 論理

로 展開해 간다면 部落 레벨의 神이 部落을 넘어서 全島的으로 擴大해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 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어떤 神은 이런 經路로 一般神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神은 그 逆의 經路를 거쳐 一般神에서 部落神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一族이나 部落神과 관계 없이 外來神을 받아들여서 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一般神에는 수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主要視되는 神은 生死에 관제하는 神인 產育神(삼승할망), 마마神(마누라), 冥府神(十王과 差使) 등과, 生業과 富에 관제하는 神인 農神(세경), 畜產神(테우리), 海神(요왕), 山神(山神大王) 등과 또 家內安全에 관제하는 門神(문전), 寃神(조왕), 穀物神(칠성 = 蛇神) 등이다. 이들 神에는 그 來歷을 解說하는 본풀이가 있고, 또 큰굿 때에는 이들 神을 對象으로 한 個別儀禮도 있다.

그런데, 이들 主要視되는 一般神들의 性格은 部落神이나 一家 내지 一族 守護神에도 共通한 바 있고, 또 같은 神이 각 레벨의 神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 있다. 즉, 產育神, 治病神, 農神, 畜產神, 海神, 山神 등은 一般神으로서도 있고, 堂神으로도 모셔지고 있으며, 富와 穀物神으로서의 蛇神〈칠성〉은 一般神, 一家守護神 雙方에서 모셔진다. 이와 같이 3개의 레벨의 神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神이 島民의 生活에 主要한 것이었음을 말해 줌과 동시에 어느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轉移해 간 것임을 推定하게 한다.

그 轉移는 두 가지의 經路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一家守護神에서 村落守護神을 거쳐 一般神으로까지 擴大되어 간 길이다. 富와 穀物의 神〈칠성〉이 그 一例이다. 칠성본풀이에 따르면 이 神은 본래 장나라 장실룡의 딸로서 중의 자식을 임신하고 石函에 담겨 쫓겨나, 北濟州郡 朝天面 威德里의 바닷가에 漂着했다. 바다에 나갔던 海女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石函을 열어 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기어 나온다. 딸이 일곱마리의 뱀을 낳고 變身한 것이다. 海女들은 이 蛇神을 〈조상(守護神)〉으로 모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후 이 蛇神은 濟州市 七星洞의 宋氏 집안에 와서 宋氏 집안의 조상이 되어 그 집안을 번영시키고 마지막에는 각각 자기가 차지할 곳을 찾아 헤어졌다. 좌정하여 지켜 주는 神이 되고, 다른 하나는 집 안 고

팡(庫房)에 좌정하여 穀物을 지키는 神이 되었다고 한다.³⁸⁾ 그래서 올라 리 안에 모시는 蛇神은 집 뒤의 空間에 모시므로 <뒤횔성> 또는 <뒤향망>이라 하고, 고평(庫房)에 모시는 蛇神은 <안칠성> 또는 <안할망>이라 한다. 이 神은 본풀이의 說明과 같이 본래 一家 레벨의 富神 내지 穀物의 神이었다. 그런데 表善面 城邑里의 경우는 이 <칠성> 神이 部落守護神으로 모셔지고 있으며, 그 본풀이의 內容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이 神은 一般神으로서 全島的으로 큰굿의 한 祭次에서 위해진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神은 一家의 守護神에서 一般神으로 된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다른 하나는 본래 一般神이었던 것인데, 그 機能이 主要하기 때문에 堂神으로 모시는 逆의 經路이다. 農神인 <세경>, 產育神인 <여리불도>, <천신불도>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 神들은 安産, 育兒 및 生業으로서 가장 主要한 農業 등, 島民의 生活에 극히 緊要한 事項을 차지하고 있는 神이므로 常設의 祭場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祈願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除外한 一般神인 玉皇上帝, 地府四千大王, 西山大師, 十王, 差使, 龍王 등 많은 神들은 外來神으로서 혹은 佛敎에서, 혹은 道敎에서, 혹은 韓國巫俗 一般의 神들에서 由來한 것들인 것이다.

V. 結 論

以上, 濟州島 巫俗에서 崇拜되는 神들을 一般神, 村落守護神,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으로 나누어 그 性格을 分析하고, 그것을 통하여 각 레벨의 神의 形成過程을 推論해 왔다. 그 結果,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과 部落守護神은 祖靈的, 生業守護神的, 災殃神的 性格을 共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信仰은 祖靈信仰의 基盤 위에 다른 多樣한 信仰의 複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또 나아가서 이 信仰은 本來 部落의 開拓氏族 一家의 守護神信仰에서 시작되어 血緣的 系譜에 따른 繼承으로 一族守護神的 性格을 띠게 되

38) 같은 책 pp.419~430 參照.

39) 같은 책 p.700 參照.

고, 다시 後來 氏族의 共同崇拜에 따라 地緣的인 部落守護神信仰으로 變貌한 것임을 알았다.

한편 一般神은 一家守護神에서 發源하여 全島民의 信仰對象으로 된 것도 있고, 佛教・道敎 등 外來神의 受容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와 같은 部落守護神의 形成過程이나 一般神의 形成過程이 濟州島의 경우는 一般的 現象으로서 드러맞는 것이지만, 이것이 韓國 全體의 堂神 形成이나 一般神 形成過程에 그대로 適用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課題이다.

〈Summary〉

Formation of Shamanistic Deity in Jeju - Island

Hyun Yong-joon

The deities worshiped in shamanism of Jeju-island may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s follows; a general deity, a village tutelary deity, and a clan or a Kinsmen tutelary deity etc.

A general deity is the one that controls a common phenomena of the nature and culture,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the mountain and the sea, life and death, a disease, an occupation, etc. and it is a deity of over-all Jeju-Island level.

A village tutelary deity is the one, called Tang-Sin, of a village level, it not only controls the lands in the village, all the lives of the villagers but guards all of them. Meanwhile a clan or a kinsman tutelary deity is usually called Jo-sang, it guards not only one household but all the lives of one clan. It is better to call it a deity of household level, for they do not perform a sacrificial rite with no clan unit but do for it with a household unit.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what is the character of three deity groups, according to which I did to examine the process to form a shamanic deity.

Belief for a Kinsmen tutelary deity is based on the ancestral worship, in the aggregate, it is thought that the belief for a tutelary deity is the complex of the worships for occupation tutelary deity and those of others.

Nowaday this tutelary deity mostly has no place of worship or a certain address but it is worshiped at the corner of the inside fence or at the corner of the storehouse.

Tang-Sin was a deity of various characters originally, but of which special feature among them is based on the character of the ancestral soul, tutelary deity of occupation, and deity of disaster, while the character is equal to that of the Jo-sang-sin that is Kinsmen tutelary deity.

According to those facts I think Tang-Sin was begun to worship as a tutelary deity of a clan level originally, by their descendents increase, it has the character of a kinship tutelary deity, and according as other clan who move to dwell in the village worship the tutelary deity of foredwelling clan, Tang is provided as a joint ritual place for the community, and then it nowadays has turned into a tutelary deity of village level.

Some of general deities rose from kinsmen tutelary deity, and they have become object of believe of all the Islanders, or others have been received as external gods like Buddhism, Taoism, etc.